

(주)우성사료

낙농 우수농장의 날 행사 개최

우성사료(대표이사부회장 지평은)가 지난 5월 21일 파주 센트럴웨딩홀에서 파주지역 낙농경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우수농장의 날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안드레아목장(대표 구홍서)은 2년 만에 두당 평균유량 10kg 향상과 높은 번식성적 개선을 보였다.

2000년에 귀농하여 육성우 13두로 시작한 안드레아목장은 현재는 총90여 두를 사육하고 있는 귀농의 성공사례이기도 하다.

“처음 시작 때부터 최고가의 사료도 먹여보고, 여러가지 선진사양관리도 적용했지만 번식문제와 더불어 쉽게 성적이 향상되지 않아 고민이 많았다”는 구홍서 대표는 2년 전부터 “오웰빙 사료와 우성의 컨설팅을 받은 후로 목표 성적에 도달해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안드레아목장은 3월 현재 김정성적 기준 착유두수 33두로 평균유량 36.4kg, 평균산차 2.6산, 유지율 4.2%, 공태일수127일로, 2년전 성적에 비해 평균유량 공태일수, 산차, 유지율등 전부분에 걸쳐 종합적으로 개선되었으며, 또한 검정농가 평균성적에 비해 33두 착유기준시, 평균유량 6.1kg, 평균유대단가 59원/L, 연간 사료비 제외 공제수익 7천8백만원 추가수익으로 고 생산비 시대에 두당 수익성은 매우 좋아져, 오히려 투자를 더 강화하여 쿼터를 150kg 구입하

안드레아목장과 검정농가 성적비교

구 분	안드레아목장	검정농가	차이
착유두수 (두)	33	33	0
평균유량(kg)	36.4	30.3	+ 6.1 kg
유 지 율 (%)	4.2	3.8	+ 0.4 %
유 단 백 (%)	3.2	3.0	+ 0.2 %
공태일수(일)	127	177	-50일
체 세 포(ml.천)	80	229	- 149 천
유대단가(L)	880원	821원	+ 59 원
년사료비제외수익	219,542천원	141,253천원	78,290천원

는 등 어려운 파고를 헤쳐 나가고 있다.

구홍서 대표는 성적과 수익성이 아주 빠른 시간 내에 개선된 원인으로는 “젖소에 양질의 건초와 오웰빙사료 급여, 하루 2회 TMR 배합 및 급여를 통하여 항상 사료조에 사료가 있게 하여 안정되게 소를 관리 하여 젖소의 BCS를 개선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를 진행한 우성사료의 김봉석 축우부장과 최용기 컨설턴트는 “안드레아 목장처럼 변화하고 투자하는 목장만이 앞으로도 견제하게 낙농



을 지속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착유두수 30두 기준에서 평균유량 30kg와 35kg는 총 수익이 2배 차이로 결국 낙농목장이 가야 될 방향은 목표를 설정하여 투자경영으로 총 수익을 향상 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VMS - 전세계 5,000대 판매 달성

드라발(주)

드라발(주) (대표: 거트 제이콥 반 디)은 지난 5월



6일 드라발 그룹 본사(스웨덴 소재) 툼바 공장에서 드라발 VMS(Voluntary Milking System: 자발적 착유시스템)의 전 세계 5,000대 판매 달성이라는 역사적인 날을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다.

VMS 제품 담당이사인 Jonas Hallamn에 따르

면, VMS 5,000대 판매 기록은 드라발 자동화 솔루션이 전 세계 낙농 시장에서 최상의 제품 신용도를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으로서, 시사하는 바가 크며, 이 성과의 전방에는 자발적 착유시스템 VMS가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 드라발 VMS 자동화 솔루션이 머지않아 10,000번째 판매 기록 달성을 전망한다고 전했다. 1990년대 초 로봇 착유 사업부문에 입문 해 VMS 담당 매니저로 근무하고 있는 Fernand vanHoven은 이 판매 기록은 그 자신에게 있어서도 커다란 성과이며 이어지는 10,000대 판매 달성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드라발 그룹의 대표이사인 Joakim Rosengren은 5,000번째로 판매 된 VMS의 최종 세부튜닝을 직접 마무리하며 전 직원과 함께 역사적인 순간을 자축했다.

5,000번째로 판매된 VMS는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전통 목장을 운영 중인 독일 남부 Wernberg의 목장주(33세, Anton Bauer)에게 배달 될 예정으로 Bauer씨는 사업 뿐 만 아니라 개인 여가선용에 있어서도 VMS가 가져 다 줄 큰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독일 지역 판매 담당자가 전했다.

전세계 5,000대 판매 기록 후, 판매 행진은 계속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한국 시장에서도 드라발 VMS는 국내유수의 선도 목장인 연산목장, 강훈목장, 금나라목장, 홍구목장 등에서 탁월한 성능으로 가동 중이며, 이와 더불어 농도원목장, 파이오니아 목장, 현구목장 등에서도 설치가 진행 중이거나 설치 예정이라고 드라발(주)는 밝혔다.

(주)동조물산

**Astronaut A3 국내 17호 로봇착유기,
환이목장서 가동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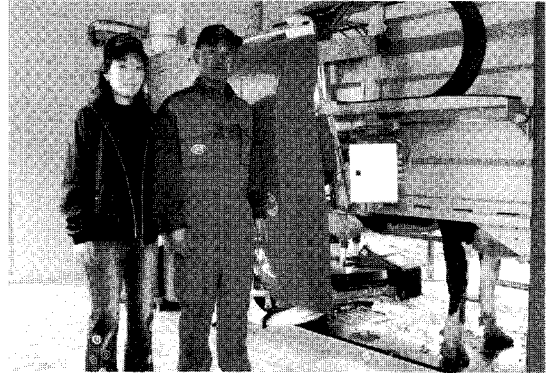


지난 3월 24일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에 위치한 환이목장에서 lely로봇착유기 Astronaut A3 국내 17호 로봇이 가동을 시작했다.

전체 착유두수 52두 중 트레이닝기간 중 선별된 40두의 개체들이 로봇착유기를 통해 자유로운 유 생산활동을 시작하였고, 연평균 55두 1,800L의 원유생산을 목표로 로봇착유시스템이 도입되었다.

이번 로봇착유기의 가동은 기존의 방법과는 달리 작년 조직된 Lely로봇착유기 컨설팅팀이 설치전 사양관리 진단을 비롯하여 가동 전 로봇착유방식에 적합한 사료급이 테이블 설정과 충분한 트레이닝의 기간을 거쳐 설치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하며, 목장의 유생산을 보증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로봇착유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그동안 로봇착유시스템은 도입초기의 사양관리 적용에 있어 전문적인 뒷받침이 부족하여 문제점을 보여왔었으나, 이번 환이목장에서는 그동안의



문제점을 정밀분석 진단하여 설치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설치 전 2개월여부터 Lely사양관리 컨설팅팀이 목장 전반의 사양관리를 로봇착유시스템에 적합한 사양관리의 전환이 이루어져 설치초기의 문제점 해결했다.

환이목장의 황교환 대표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다 과학적이고 노동효율적인 lely로봇착유시스템을 선택했다”며, “지금과 같은 힘든시기에는 목장의 경영유지가 아닌 과감하고 전략적인 과학나 농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ely[동조물산]에서는 로봇착유컨설팅팀을 만들어 로봇착유시스템농가의 사양컨설팅 지원하여 설치초기의 문제점이나 로봇착유시스템에 대한 편견에서 극복하고 있다.

또한, Lely Astronaut A3 18호기는 지난 4월 23일 황골목장(대표 박창규)에서 가동을 시작하였는데, 황골목장은 이미 2007년 12월 26일 부터 Lely Astronaut A3 로봇 착유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해 오다, 이번엔 Astronaut A3 로봇 착유시스템을 1대 더 추가로 도입, 총 2대의 로봇 착유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다. ☺